

프랑스 도농연대, 협동조합 사례 - 다양한 연결과 협력의 의미

김정연

| 프랑스 농업 연대 시스템 발전 배경

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, 청년층의 높은 진입장벽



도시민의 윤리적 소비와 농민 간의 협력 경제를 결합한 연대 시스템



농민의 수익 안정성, 농업의 지속 가능성

| 프랑스 농업의 3대 연대 모델

도시 - 농촌

1. 아몓(CSA)
2. 라 휘시 끼 디위
3. 오멜로코
4. 테르 드리앙
5. 농민시장

농민 간 협력

1. 가엑
2. 큐마
3. 시카

사회적 연대

1. 페르므 에소르
2. 시밤
3. 아데아

1. 도시 - 농촌 연대

도시-농촌 연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를 구축하여

농민에게 안정적인 판로와 공정한 가격을 보장함

아마프 AMAP Association pour le Maintien d'une Agriculture Paysanne



- 지역농업 유지를 위한 비영리 협회. 생산자와 소비자가 위험을 공동 분담하여 지역 농업 지원
- 배경: 1970년대 일본 테이케이(提携) 모델과 2000년대 초 프랑스 지역 소농 위기에서 기원
- 목표: 시장 변동성에 구애 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통한 친환경 소농 유지
- 운영 방식: 선불계약제(주로 1년 약정), 환불 없음(소비자가 생산 리스크를 함께 부담)
- 가격결정: 농민이 운영비용+노동임금을 합산한 금액 제시, 소비자 그룹의 합의로 결정
- 농산물 배분: 농산물 생산시기 주 1~2회 정해진 요일과 장소에서 비선택적 농산물 꾸러미 직접 수령
- 운영참여: 연간 일정 시간 자원 봉사(농산물 분류 및 배분) 및 협회 행정 업무 참여 의무 또는 강력 권장





La musique adoucit les légumes !



라 휘시 끼 디 위 La Ruche qui dit Oui!



- “예” 라고 말하는 벌집이라는 뜻으로, 생산자 가격 결정권,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는 지역 먹거리 직거래 플랫폼.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유연한 직거래 시장 모델
- 농민에게 공정한 수익 보장과 도시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함
- 운영: 지역 주민이 벌집리더가 되어 운영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여 온라인 주문과 구매, 주 1회 1~2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함
- 방식: 소비자는 선택 구매, 생산자는 가격 결정권을 지님
- 수익 배분: 농민 83.5%, 벌집리더 8.25%, 플랫폼 수수료 8.25%
- 한계: 운영자의 역량에 따라 지역별 운영의 질 차이 존재



오멜로코 O'méloko



- 프랑스 남부 타른 지역 농민과 장인이 주도해 지역 먹거리 유통을 재구축한 생산자 중심 협력 모델
- 취지: 직접 판매 시스템 구축, 지역 경제 활성화(로컬푸드 시스템), 투명한 먹거리(원산지과 생산과정)
- 농민: 직접 생산 및 재고 관리, 공동 운영, 꾸러미 준비 및 수령 지점까지 운송
- 소비자 및 자원봉사자: 온라인 플랫폼 주문, 지정된 요일에 수령 지점에서 픽업 및 운영 지원
- 수익 배분: 농민이 원가와 임금을 고려하여 판매 가격 결정, 최소한 운영 비용 공제 후 농민에 배분
- 중간유통을 거치지 않아 수익률 30~50% 증가

- 지역연대 강화와 지역 먹거리 주권 확보,
소규모 친환경 농가 경제적 기반 마련으로
지역농업 생태계 보존



식탁 위의 합리적 선택







| 테르 드 리앙 Terre de Lian 연대의땅

- 농지를 지키고, 친환경 농업을 하려는 농민들의 토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운동
- 취지: 농지를 투기 시장에서 분리하여 공공의 자산으로 보존함
- 방식: 시민 펀드를 통해 농지 매입, 농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 조건으로 장기 임대
- 세 개의 법적 조직이 상호 보완 운영
 1. 협회: 현장 활동 및 농민 지원
 2. Foncière(투자회사): 연대금융, 시민 자금 유치 및 토지 매입
 3. 재단: 기부금 및 영구자산 관리
- 운영시스템
 1. 자금 모금: 시민이 Foncière 주식 매입 또는 재단 기부(낮은 수익률, 세금감면 혜택)
 2. 농지 매입: 협회가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지 발굴, Foncière 또는 재단이 매입
 3. 농민 장기 임대: 주로 비농업출신 청년농민에게 환경조항이 포함된 장기 임대차 계약 제공
- 특징: 매우 낮은 투자 수익(시민투자자), 안정적이고 저렴한 농지임대료(농민), 재판매 금지(투기방지)
- 시민투자를 통한 농지 보존의 혁신적 모델, 자금 조달 한계와 행정 및 관리 부담은 한계

마르쉐 드 프로듀크테르 MARCHE DE PRODUCTEURS



- 농민생산자 시장.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단거리 모델 중 가장 공식화, 활발한 형태
- 20세기 후반, 대형 유통망의 성장에 맞서 농민들의 협상력 회복과 소득 안정화 대안으로 활성화
- 농민의 소득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제공
- 참가자격: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판매 주체는 농산물을 직접 재배, 사육 또는 가공한 농민(상인 참여 불가)
- 주기: 주 1~2회 정기적인 요일장 운영, 계절에 따라 야시장 또는 축제로 농촌관광과 연계
- 운영주체: 농민 생산자 협회 또는 지역 CIVAM 그룹(지자체: 공간 제공, 행정 관리)







ASPERGES
BLANCHES
4€ la botte
500gr

Salade
1€20

Oseille
1€80 la botte

AIL
1€20





2. 농민간 협력

개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노동과

자본 투자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여 경영 효율을 극대화함

| 가액 GAEC Groupement Agricole d'Exploitation en Commun



- 1962년 프랑스 정부가 농업 현대화와 식량 생산 증대를 목표로 도입한 소규모 협동조합농장모델
- 성인 2~10명으로 구성, 부부도 구성 가능
- 법적 지위: 민간 법인형태이나 세제 및 사회보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음
- 원칙: 공동 경영(공동 책임, 공동 의사결정, 공동 소득분배)
- 목표: 소규모 가족농의 재정과 노동 부담을 완화하고 농민 삶의 질 향상







- 농업 기계 공동 이용 협동조합
- 배경: 농기계 개별 구매의 재정적 부담,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 방치되는 비효율성 개선
- 방식: 농민 공동 출자로 농기계 구매, 공동 이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(투자 보조금)
- 효과: 최신 기술과 전문 장비 도입으로 선진 농업기술 활용, 노동 효율성 강화
- 의의: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문화 형성, 강력한 농민 연대 조직의 기반이 됨
- **청년농민에게 매우 중요한 진입 장벽 완화 수단(초기자본부담 감소, 최신 기술 및 정보 공유, 고립방지)**



| 시카 SICA Société d'Intérêt Collectif Agricole

- 농민, 기업, 공공기관이 함께 출자하는 농업공익협동조합
- 배경: 단순 생산물 판매만으로는 안정적 수입 어려움, 고부가가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자본 필요
- 방식: 생산, 가공, 저장, 마케팅에 이르는 전체 가치 사슬을 농민 주도로 통합 관리
- 법제화: 농민 외 관련 기업이나 은행의 출자를 유도해 대규모 투자 자본 확보를 위한 법적 틀 제공
- 의의: 지역 경제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공익적 목표를 사업에 반영, 지역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



3. 사회적 연대

청년 농민의 창업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고, 농민 스스로의 지식 및
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풀뿌리 네트워크와 정책 인프라를 의미함

| 페르므 에소르 FERME ESSOR

- 취지: 재정적 위험 없이 실제 농장 경영을 시험하는 ‘시험 농장’(신규 진입자의 리스크 최소화)
- 운영: FADEAR, TdL, 지자체 등의 협력 네트워크로 운영
- 참가: 농업 창업 희망자(만 40세 미만 청년)
- 의무: 1~3년 간의 경영 시험 참여, 멘토링 이수
- 권리: 재정적 위험 없이 임시 농지 및 장비 사용, 생산 수익 일부 배분
- 한계: 시험기간(1~3년)의 한계로 장기 작목 시험 불가









| 시범 CIVAM 농업인 개발 및 가치 창출센터 Centres d'Initiatives pour Valoriser l'Agriculture et le Milieu rural

- 지속 가능한 농업, 농촌개발, 환경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농민주도의 전국적 네트워크
- 배경: 1950년대 농민 주도 학습 모임에서 시작, 공동체적 집단학습 방식으로 농업기술과 경영 발전
- 역할: 농민간의 지식 공유 촉진, 환경 친화적 농업 확산, 소규모 그룹 집단학습, 환경 보존 및 유통
- 조직: CIVAM 연합회(전국), 지역 CIVAM그룹
- 운영: 회원들의 자발적 운영. 정부, 지자체, EU의 보조금을 받기도 함
- 발전과정
 - 초기(~70s): 생산성 향상, 농업기술에 중점을 둔 기술교육 및 교류
 - 중기(80s~90s):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및 단거리 유통 시스템 구축
 - 현재: 기후변화대응, 농업의 다기능성 증진 등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

| 드 페름 앙 페름 De Ferme en Ferme 농장에서 농장으로

- CIVAM 네트워크 주도하는 농민-소비자 연계 활동
- 소속 농장들이 농장을 도시민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
- 성과: 농민들이 환경문제 학습과 기술 개선에 적극적 참여, 유기농업, 저투입 농업, 단거리 유통 시스템 등
지속가능 모델 확산에 기여
- 한계: 재정적 자립,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. 대규모 농업 정책, 산업적 변화에 즉각 영향 한계, 지역별 차이 존재

| 아데아 ADEAR 농업 및 농촌 고용 개발 협회 Association pour le Développement de l'Emploi Agricole et Rural

- 프랑스 농민연합과 연결된 네트워크. 프랑스 전역에 80여 개 지역조직으로 구성
- 농민 주도의 지역농업 발전과 고용 창출 지원
- 소농, 가족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농업 촉진
- 취지: 젊은 인력의 농업 진입을 돕기 위한 풀뿌리 지원 조직의 필요성 대두
- 지원: 농업 창업에 필요한 경영, 법률, 기술 교육 제공, 경험 있는 농민 멘토링
농지 보전 단체나 지역 토지 공사와 연계하여 농지 임차 및 매입 지원, 농지 확보 문제 해결
신규 농민 정착 지원금 등 정부 및 EU 지원 정책 컨설팅
- FADEAR: ADEAR 조직들을 통합하여 전국적인 연대와 정책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 조직

| 프랑스 농업 연대 시스템의 의의



감사합니다